



# 다송자本 동다송 완역

## 숨겨진 차계 거인의 필사본... '차 교과서' 손색없어

초의 선사의 동다송 김대성 역음 | 동아일보사

우리나라 차인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동다송>. 하지만 조선후기의 대표적 다학(茶學)인 초의 선사(1786~1866)가 직접 쓴 <동다송>의 정본은 오늘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여러 필사본이 전하는 가운데, 이번에 김대성 씨가 전남 순천의 송광사에서 '다송자(茶松子)' 본을 발견해 그 완역본을 내놓았다.

다송자는 조선 말 금명보정(1861~1930) 스님의 이하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스님은 15세 때 송광사로 출가한 후 평생 수행정진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송광사를 떠나지 않았다. 이후 그 이름이 세인들 사이에 알려지는 듯 했으나 2001년 송광사에서 '다송자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가 열린 뒤, 스님이 난긴 80여 편의 차시(茶詩)에 다인들이 주목하게 됐다. '차인'으로서의 스님의 면모가 뚜렷하게 조명된 것이다.

역주자인 김대성(63) 씨는 한국일보와 문화일보 문화부장과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 차인연합회 고문이자 (사)한배달 한국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차계의 원로. 김 씨가 <동다송>의 다송

자 필사본'을 발견하게 된 것은 오랜 세월이 걸친 노력 덕분이다. 1997년 봄 <한국불교전서> 12권에 실린 <동다송>의 모본이 된 다송자 스님의 필사본을 찾아 나섰다. 이곳저곳에 수소문을 해 봤지만 책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게 5년이 지난 2002년 가을, 김 씨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이 특별히 보관하고 있던 '다송자 필사본'을 발견하고 원문을 활영해 다른 판본과의 대조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전하고 있는 <동다송> 필사본은 크게 4가지.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의 다예관에 소장된 '다예관본'은 응송 스님이 소장한 것이 양도된 것으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석오 윤치영 씨의 필사본으로 초의 스님의 친필이 적혀 있어 한때 정본(訂本)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으나 오자와 탈자가 많아 정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한국다문화연구소 정영선 씨가 소장한 '경암본'은 1874년 스님으로 짐작되는 경암이라는 사람이 필사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송자 필사본'이다. 김 씨는 "다송자 스님은 초의 선사의 제자에게 차를 배웠고, 스님 자신이 차와 시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는 점에서 필사본 중

다송자본이 가장 원전에 충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몇 편의 차시만 남겨도 대단한 차인으로 추앙받는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80여 수의 주옥 같은 차시를 남기고도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다송자 스님은 이제 새로운 근대의 차인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다송자 필사본의 번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다른 판본들과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비교했다. 원문과 해석을 옮기고 중요 어구나 설명이 필요한 단어는 '원문 확대경'에서 자세히 풀었다. <동다송>에 언급된 중국과 한국의 차 현장을 답사한 기록도 실었다.

"우리나라 차 문화사에 우뚝한 <동다송>은 더 깊이 파고들어가 분석되어야 할 텍스트입니다. 초의 스님이 <동다송>을 통해 던지고 싶은 화두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짚은 명저가 나올 때 우리 차 문화는 지금보다 한 차원 높아질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송광사 영정각에 소장되어 있는 다송자 스님의 영정(사 진 위패)과 스님의 차시가 실려있는 <다송시교> 모습.



### 새로운 책

■ <붓다형 인간> (나라 아사키 지음, 조동림 옮김, 장)=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화나고 짜증나는 일과 수시로 마주치게 된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직장은 '자아실현'을 위한 장소가 아닌 '살기 위해 버텨내야 하는' 곳이 되고 만다. 이 책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김으로써 지극지극한 직장생활을 수행의 방향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준다. '왜 남을 이기고 싶을까' '동료들과 쉽게 동화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출세가 부러울 때' 등 상황에 따른 대처법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경구를 소개한다.



■ <신기한 과학미술 100> (엘케 다네키 지음, 비트릿 리저 그림, 김완균 옮김, 9천원)=미술은 그저 신기한 눈속임에 불과할까? 이 책은 독일의 초등학교생들이 기초 과학의 원리를 익히기 위해 배우는 미술의 원리를 소개한다. 풍선으로 만드는 로켓, 기점으로 만드는 마법의 구슬 등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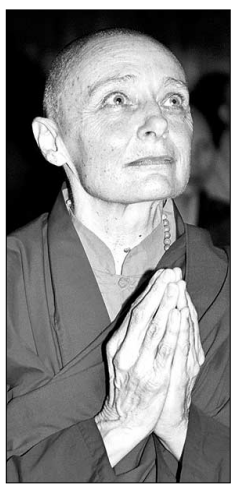


■ <선이관 외판집 일곱 식구 이야기> (김홍희 지음, 임종진 사진, 산티, 1만1천원)=강원도 화천군 선이관 외판집. 천길밭도, 우체부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서 5명의 자녀와 함께 사는 김명식 김용희 부부의 이야기. 대학 강사와 약사로 활동하던 이들은 '도시의 편리함'을 버리는 대신 더 큰 풍족과 행복을 얻었다고 말한다.



## 생활 속 수행 이렇게

###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 보라



지난 6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여성불자대회' 참석차 방한했던 텐진 빠모(사진) 스님의 책 <텐진 빠모의 마음공부>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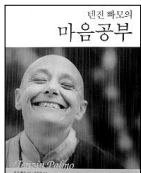
책은 1987년부터 3년동안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강연을 정리한 것으로, 스님의 수행담과 수행법을 알려준다. 스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머리를 꺾고 산문에 들어서야만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생활 속의 수행'을 강조한다.

스님이 알려주는 수행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뜻의 '사마타'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들여다본다'로 풀이되는 '위빠사나'다.

사마타 수행법의 핵심은 명상을 통해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편지를 쓰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온통 집중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고 말한다. 바쁨이 잠잠해지면 호수의 표면도 거울처럼 맑아지듯,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감각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빠사나는 이렇게 한 곳에 모아진 마음 그 자체를 관찰하는데 사용하는 수행법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텐진 빠모의 마음공부 열림원 | 1만1천원



템플스테이 여태동 지음 | 1만5천원

산사에서 하룻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보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면 어느 사찰에 가야 할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주말여행의 백미로 떠오르고 있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이러한 현대인의 감정을 해소해준다.

<불교신문> 여태동 기자가 쓴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안내서로, 단순한 프로그램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서유기 오승은 지음 연변인민출판사 번역팀 옮김 현암사 | 8천5백원

중국 4대 기사(奇書) 중 하나인 <서유기>가 연변인민출판사 번역팀에 의해 알간됐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의 이야기는 동화나 만화 등 다양한 장르로 소개돼 우리에게 무척 익숙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고전들이 그렇듯 <서유기> 또한 익숙하지만 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이야기로 가

## 산사에서 하룻밤 보내기

### 사찰 15곳 역사·건축·문화재 소개

을 넘어 보다 효과적으로 산사에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에는 조계종이 공식 지정한 양양·낙산사와 공주 마곡사, 해남 대흥사, 양산 통도사 등 11개 템플스테이 사찰과 여 씨가 선택한 4개 사찰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절의 연혁과 역사, 건축물과 문화재에 얽힌 이야기를 비롯해 새벽 예불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사찰정보와 함께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산세와 울곧게 지켜온 우리네 불교문화의 한 자락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참고해볼만 한 책이다.

## 친숙하지만 낯선 서유기 다시 읽기

이런 번역본의 가장 큰 특징은 한글세대에 맞도록 원본을 정역으로 옮기고, 37명의 중국 정통화가가 그린 총 268컷의 삽화를 곁들인, 국내 최초의 '정역 그림판'이라는 것. 오행 사상과 같은 동양적 사고와 복잡한 관련 용어, 생소한 등장인물은 다소 생소해 책 읽기의 속도를 늦추게 하지만 삽화는 등장인물의 심리와 정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줘 책 읽기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또한 중국 고전에 대한 꼼꼼하고 정확한 번역 덕분에 고전의 예스러운 문체를 즐길 수 있다.

##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본 학회는 궁중비법 사주명리 연구로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이며 현재 각지 200여곳에서 회원님들이 성황리 활동중이 며 특히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처음 배우실 분, 해도해도 안되는 분을 위하여 1개월(주간)/3개월(야간,주2회)수강하시면 완벽한 비법으로 눈치볼 필요없이 100% 책임 보장, 개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험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 안 내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기간 : ◆1개월 완성반(주 월~금) 시간 : ④ 정오 12~오후 2시 ⑤ 오후 2~4시 ⑥ 오후 4~6시 ◆3개월 완성반(주 2회) ④ 월·화반 ⑤ 수·목반 (시간: 오후 7~9시)
- (무료특강 : 8월 20일 19시, 수강접수마감 : 8월 25일 18시, 개강 : 8월 26일)
- 지도교수 : 강사 : 백운 성수 (본학회 회장) 대각 스님 (금강불심원) 백궁, 봉계, 도영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 (최고시설완비)

※ 금강불심원(본 학회 직할) 대각스님(053-425-787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 국제보살수계대법회

8월 20일 ~ 22일 (3일간)

팔공산 깃바위 약사암은 한국불교의 최대 기도처로 널리 알려진 깃바위 부처님의 정기를 이어 받은 청정 기도도량입니다. 이곳 약사암에서는 다섯 번에 걸쳐 환생한 생물로 널리 알려진 티벳 참보스님을 비롯하여 왕정스님, 수지스님, 누루보스님, 고리스님 일행을 초청하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국제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무 동참하시어 좋은 인연 지으시길 바랍니다. 약사암 주지 일여 함장

### 수계법회 일정

- 첫째마당 - 8월 20일 금요일(음 7.5) 오전 11시 ~ 오후 3시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 타목 (打墨) 퍼포먼스 (울산 리홍재)
- 둘째마당 - 8월 21일 토요일(음 7.6) 오전 11시 ~ 오후 3시 - 마정수기 법회 - 관음예찬 독송 (일주 큰스님)
- 셋째 마당 - 8월 22일 일요일(음 7.7) 오전 11시 ~ 오후 3시 -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 법어 (법화중 종정) - 타목 (打墨) 퍼포먼스 (울산 리홍재) - 산석음악회 오후 3시 ~ 5시 - 장대민 (깃바위 가수) - 김용민 (천재소년 트롯트 가수) - 너훈아 (너훈아 모창가수), 박미희 외

### 동참안내 및 문의

- 문 의 : 깃바위 약사암 053)852-0803
- 동참비 : 한 가정 5만원 (가족 전원 축원, 수계 2명)
- ※ 전 가족이 수계를 받을 경우에는 금강전(특수본) 한 절을 무료로 드립니다
- 부전(행자)스님을 모십니다. 연락처 011-9585-4908 혜봉스님

## 팔공산 깃바위 약사암

##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2기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 9월 7일(화)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만 신일(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과 정

- ① 초급반 (3개월): (매주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상왕기도...
- ② 중급반 (3개월): (매주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리법, 정안시식, 방생시식, 구병시식...
- ③ 작법반 (6개월): (매주 : 화요일 오후 4시 ~ 6시) 천수바라, 대계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 ④ 고급반 (6개월): (매주 : 수요일 오후 2시 ~ 6시) 영산재, 예수재, 수록재 등... [의명자 소수]

대구대승불교대학부설 범음·범패 의식교육원·정토사

신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문의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 가야산 청정도량에서 철하기도는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정전하오니, 불자님들의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상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 승복 법복 안내

###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 광목(면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면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면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면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대구 중구영천동 [동삼아파트 지하 공방]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이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방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방)